

##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의 한 해석\*

정 진 희\*\*

### 요 약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은 채록된 각편이 한 편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국가 권력의 지배에 대한 제주도의 집단적 저항 의식이 드러나는 이야기로 주목되어 왔다. 본고는 <양이목사본>이 외래 국가 권력이 제주를 지배하게 된 역사적 상황과 관련되는 신화적 담론이라는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서 그 담론적 의미 혹은 의의를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양이목사본>은 기본적으로 '일월조상'의 내력을 서술하는 신앙 담론이다. 육지에서 부임한 목사가 자기 희생을 통해 제주의 공납 의무를 감해 주었던 사건을 서술하고, 그 사건의 주인공인 '양이목사'가 일월조상으로서 집안을 수호해 준다고 함으로써 집안 수호신의 '힘'을 재확인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양이목사본>은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현재 전승 집단의

---

\*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08) 일부(3장 3절 부분)를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자리를 규정하는 역사 담론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양이목사본> 서사의 대립 관계는 외래 국가 권력이 제주도를 지배하게 되면서 재편된 제주도 내부의 권력 구도와 일치하는바, <양이목사본>은 실권을 상실한 제주 호족 탐라 양씨 집안의 역사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역사 담론으로서의 <양이목사본>은 외부 국가 권력의 대리인인 ‘목사’를 ‘일월조상’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지배적 담론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에서 ‘비-동일화’ 담론으로서의 저항성을 지니기도 한다. 바로 이것이, <양이목사본>에서 발견되는 ‘저항’의 특징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주요 색인어:** 제주신화, 양이목사본, 담론, 비-동일화

## 1. 문제제기

제주도 조상본풀이 <양이목사본>은 권력의 억압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독해되어 왔다.<sup>1)</sup> 본풀이의 주인공인 ‘양이목사’는 권력의 수탈에 저항하다가 비극적 죽음을 맞은 민중적 영웅인바, <양이목사본>을 통해 수탈을 자행하는 권력에 대한 제주도 민중의 저항 의식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권력과 민중의 대립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양이목사본>에서의 대립은 제주도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한 계급적 대립 관계 이상의 의미가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 제주도는 오랫동안 나름의 문화와 역사를 영위해 오다가 고려 시대 이후에 비로소 한반도에 존재하는 국가 권력의 지배 권역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곳이다. 따라서 <양이목사본>에 나타나는 권력과 민중의 대립은 외부에서 도래한 국가 권력과 국가를 상실한 집단의 대립이라는 구체성을 띠다고 할 수 있다.<sup>2)</sup> 결국 <양이목사본>에 나타나는 ‘양이목사’의 권력에 대한 반발과 저항은 중앙의 국가 권력에 대한 제주도민의 ‘집단적’ 반감<sup>3)</sup>을 드러내는 것이며, 이러한 해석을 따를 때 <양이목사본>은 중앙의 국가 권력에 대한 ‘제주도’라는 집단의 저항 의식이 표출된 언술로서 자리매김된다고 할 수 있다. 과연 <양이목사본>을 중앙의 국가 권력에 대한 ‘제주도’라는 ‘집단’의 저항

1) 조동일(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93-96면; 최원오(2001), 「동아시아 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70-75면; 조현설(2008), 「외부의 부당한 억압이 만들어 낸 비극적 남성 영웅」,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고전 캐릭터가 펼쳐 보이는 사랑과 인생』(서대석 엮음), 휴머니스트, 42-43면 등의 선행 연구 참조.

2) 이러한 면모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인 이는 조동일이다. 조동일은 이른바 ‘탐라국’의 역사를 말살해 온 한국사 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조동일(1997), 「국사를 넘어서는 역사이해의 열린 시야」,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출판부 등),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양이목사본>을 ‘탐라국이 망한 다음 제주도민이 자주성을 상실한 시기’에 나타난 영웅서사시로 파악하였다. 조동일, 위의 책, 93면.

3) 최원오, 앞의 글, 73면.

의식이 표출된 언술로서만 이해해도 좋은 것일까? <양이목사본>이 전승되는 맥락을 고려하면 이러한 해석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양이목사본>이 ‘제주도’라는 ‘집단’의 언술인가 하는 점이 확인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양이목사본>은 제주도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본풀이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양이목사본>은 안사인 심방 구연본이 유일본이며, 그것이 수록된 『제주도무속자료사전』에는 특정 집안에서만 배타적으로 전승된다는 ‘조상본풀이’라는 항목에 실려 있다. 중앙의 국가 권력에 대한 제주도의 집단적 저항 의식이 <양이목사본>의 핵심이라면, <양이목사본>은 전도적으로 전승되는 자료여야 하지 않을까? 특정 집안의 신화에서 집단적 저항 의식을 전승하는 것이 가능한가? <양이목사본>이 ‘탐라 양씨 명월파’ 집안에서만 전승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양이목사본>이 중앙 권력에 대한 ‘저항 의식’이 표출된 언술이라는 점도 다시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양이목사본>에서 ‘양이목사’는 중앙 권력에 의한 과도한 과세에 저항하며, 이것은 분명 <양이목사본>에서 중앙 권력의 과세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양이목사’는 그러한 과세에 저항한 끝에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러한 죽음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는 패배의식을 나타내’<sup>4)</sup>는 것이다. 즉, ‘저항’은 ‘죽음’이라는 패배적 정황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다. 저항이 패배로 귀결되는 이러한 이야기를 과연 ‘저항 의식’이 드러나는 언술로 보는 것이 가능할까?

중앙 정부에 대한 ‘양이목사’의 저항 의지를 소중하게 평가하고<sup>5)</sup> 그 저항 의지를 찬양하려는 의도<sup>6)</sup>에서 <양이목사본>이 구연되었다는 견해<sup>7)</sup>가 없

4) 조동일, 앞의 책, 95면.

5) 최원오, 앞의 글, 74면.

6) 같은 글, 75면.

7) 최원오는 ‘중앙 권력에 대한 저항 의지 그 자체가 소중하게 평가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최원오(2001), 『동아시아 비교서사시학』, 월인, 105면.

는 바 아니다. 하지만 ‘양이목사’의 죽음으로 과도한 과세가 감면되었다는 결말은 ‘양이목사’의 ‘저항’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라는 ‘희생’과 그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과세의 감면’에 기억의 초점이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중앙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혜나마 얻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양이목사본>은, 중앙의 지배 권력이 얼마나 공고한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무참한 결과를 낳는 것인가를 서술함으로써 오히려 현재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는 언술로 기능한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양이목사본>을 검토해 보려 한다. 외부에서 도래한 국가 권력이 제주도를 지배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특수한 권력 관계가 <양이목사본>의 전제가 되는 역사적 현실이었다는 선행 연구 성과를 토대로, <양이목사본>에는 그러한 현실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또 그러한 현실 위에서 <양이목사본>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담론일 수 있는가를 고찰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 2. <양이목사본> 분석의 실제

<양이목사본>의 서사는 다음과 같이 항목화할 수 있다.

- (가) 옛날 탐라국 때 양이목사가 상서울 상시관 명을 받아 목사가 되었다.
- (나) 일 년에 한 번 백마 백 필을 진상하기로 한 후 네 번째 해였다.
- (다) 양이목사가 백마 백 필을 진상하면 백성이 곤경에 빠진다는 陳情을 올리고, 馬夫 대신 직접 진상에 나선다.
- (라) 양이목사가 말을 육지로 싣고 나가 팔고, 그 돈으로 산 다른 물품을 제주에 와서 팔았다.
- (마) 상시관이 세 해를 기다리다 결국 하줄을 보낸 끝에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바) 금부도사가 자객을 앞세우고 양이목사 목을 베기 위해 제주로 향했다.

(사) 양이목사가 미리 알고 사공과 함께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금부도사의 배와 마주쳤다.

(아) 양이목사가 자객의 목을 베고 금부도사를 무릎꿇렸으나, 방심하는 사이 금부도사가 양이목사를 돛대에 매달았다.

(자) 목을 베라는 양이목사의 말에 금부도사가 울며 목을 베니, 그 몸이 용이 되어 용왕국으로 들어갔다.

(차) 몸 없는 양이목사가 사공에게 ‘토지관 탐라 양씨 대대손손 신품이를 해 달라’는 소원을 말하고 상시관에 올라갔다.

(카) 양이목사가 상시관에게 사실을 말하니, 양이목사 한 몸의 희생으로 백마 백 필 진상을 면하게 되었다.

(타) 양이목사가 제향을 받게 되었다.<sup>8)</sup>

이러한 서사에서 본고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먼저 ‘양이목사’는 어떤 집단을 대표하는 인물인가를 고찰할 것이다. 다음으로, <양이목사본>에 나타난 신화적 서사가 어떠한 역사적 현실에 기반한 신화적 언술인가를 살피고자 한다.

## 2.1. ‘양이목사’의 出自와 대표성의 변화: ‘목사’에서 ‘일월조상’으로

제주도의 구비설화나 당본풀이에서 중앙 권력에 의해 제주도에 파견된 ‘목사’는 중앙 권력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려진다.<sup>9)</sup> 그러나 <양이목사본>에

8) 줄고, 앞의 글, 79-80면.

9)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제주도에는 중앙 권력을 대표하는 목사와 그와 대립 관계에 있는 제주의 토착 인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구비 전

서의 ‘양이목사’는 중앙 권력의 대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렇다면 그는 중앙 권력과 제주도의 대립 구도에서 제주도를 대표하는 신화적 형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양이목사본>에서 ‘양이목사’의 제주 부임 장면을 보자.

옛날 제주 탐라국 때, 양이목사 삼문안 살아올 때, 상서울 상시관의 명을 받아 양이목사가 목사로 살아옵데다.(밑줄 필자) 양이목사 시절, 제주에서 일 년 한 번 백마 백 필을 진상올리라 하여 어느 목사를 막론하고 일년이 다 지나면 입춘 새해 나기 전에 백마 백 필씩 진상을 올립데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진상을 고이 올리고 네 번째 백마 백필을 진상하고자 할 때, 양이목사가 제주목사로 내려옵데다.(밑줄 필자)<sup>10)</sup>

여기에서의 서술만으로 보면 ‘양이목사’는 제주 출신의 인물로 단언하기 어렵다.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양이목사’는 ‘상서울 상시관’의 명으로 제주 목사로 부임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에도 불구하고 ‘양이목사’를 제주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은 ‘양이목사’가 탐라 양씨 명월과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이기 때문인 듯하다.<sup>11)</sup> 하지만 ‘양이목사’는 탐라 양씨 명월과 집안의 ‘일월조상’이지, 부계적 혈연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조상’은 아니다. 제주도의 전통적 의례 체계에서 유교적 제사의 대상이 되는 혈연적 ‘조상’과 무속적 의례의 대상이 되는 ‘일월조상’은 원칙적으로 구분된다. ‘일월조상’은 특정한 집단의 제향을 받고 그 집단을 보호해 주는 일종의 수호신일 뿐, 그 집단의 혈연적 시

---

승물이 존재한다. 목사와 당신(堂神), 목사와 심방 사이의 갈등이 중심이 되는 영험담 유형의 당본풀이에 대해서는 줄고,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에서 다룬 바 있다.

10) 이하 인용문은 현용준(2007), 『제주도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2007년의 자료를 운문한 것이다. 편의상 인용 페이지는 생략한다.

11) 조현설은 ‘양이목사가 탐라 양씨의 조상으로 제주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며(조현설, 앞의 글, 45면), 최원오는 양이목사가 ‘탐라 양씨 자손 만대까지 신필이를 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양이목사가 제주도 출신임을 말해 준다’고 보았다(최원오, 앞의 책, 103면).

조 혹은 조상은 아닌 것이다. <양이목사본>이 일월조상에 대한 본을 푸는 조상본풀이로 수록된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서의 ‘양이목사’는 혈연적 조상이 아닌 ‘일월조상’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이목사’가 탐라 양씨 명월파에서 모셔지는 ‘조상’이라고 해서 그가 양씨 집안과 혈연 관계에 있는 제주 사람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이목사’의 일월조상으로서의 면모는 아래 장면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몸 없는 양이목사가 고사공에게 마지막 소원으로, “환고향하여 돌아가면, 영평 팔년 을축 삼월 열사흘 자시생은 고의왕 축시생은 양의왕 인시생은 부의왕 삼성(三姓) 가운데, 토지관 탐라 양씨 자손만대까지 대대로 전하여 신정국을 내 풀리고 이 내 역사상을 신풀어 난산국을 신풀면 우리 자손들에게 만대유전을 시켜주마.(밀줄 필자)” 몸 없는 머리로 입을 열어 말씀하고(…) 이 조상이 (…) 토지관 양가(梁哥)에 상가지로 줄이 뻗어 큰곳에는 열두 석시 중당클에 여섯 석시 앞인제에 삼 석시 해 넘어가는 철갈이에 신과세를 받아오던 양이목사(밀줄 필자)(…)

‘양이목사’는 ‘양가(梁哥)’, 즉 양씨 집안에서 ‘큰곳에는 열두 석시(…) 철갈이에 신과세’ 등의 제향을 받는 신이다. 그런데 ‘양이목사’가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은 ‘고사공’을 통해 ‘토지관 탐라 양씨’에게 대대로 ‘신정국을 내풀리고 이 내 역사상을 신풀어 난산국을 신풀어’ 주기를, 즉 자신을 제향해 줄 것을 소원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원에는 ‘자손들에게 만대 유전을 시켜주마’는 보상이 전제되어 있었던바, ‘양가’는 ‘양이목사’의 소원을 받아들여 제향을 행함으로써 ‘양이목사’를 ‘일월조상’으로 모시는 ‘자손’이 되었던 것이다.<sup>12)</sup> 요컨대 ‘양이목사’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토지관 탐라 양씨’ 집안을 번성하게 해 주는 신으로 좌정하여 제향받게 된 것이지, 애초부터 탐라 양씨 집안에 속한 인물은 아니었다고 하겠다.

12) 제주도의 전통적 의례 체계에서 신격과 제향민은 이러한 계약에 의해 조상-자손 관계로 맺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참고,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4장 3절 참조.



이렇듯 ‘상서울 상시관’의 명을 받아 제주 목사로 부임한 인물이 탐라 양씨 집안의 ‘일월조상’으로 섬겨지게 된 경위가 서술되어 있는 것이 <양이목사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양이목사본>의 ‘양이목사’는 중앙 권력에 대립하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탐라 양씨’라고 하는 제주도의 토착 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양이목사’는 중앙 권력에 의해 부임해 온 목사이면서 중앙 권력과 대립각을 세우다가, 일련의 사건과 죽음 이후 ‘탐라 양씨’의 수호신으로 좌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이목사’는 신화적 서사를 전후로 하여 중앙 권력의 대표자에서 탐라 양씨를 대표하는 신격으로 그 대표성이 변화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sup>13)</sup>

## 2.2. 신화 서사와 제주 역사

‘양이목사’가 제주 목사로 부임한 것은 ‘어느 목사를 막론하고 입춘 새해 나기 전에 백마 백 필씩 진상을 올리’던 시기였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세 번의 진상이 끝나고 네 번째로 백마 백 필을 진상할 무렵이다. 제주도가 중앙 권력에 대해 백마 백 필을 바치는 진상의 의무를 저야 하던 시기에, ‘양이목사’는 그러한 의무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감독하는 중앙 권력의 대리자로서 제주도에 파견된다. 이러한 ‘양이목사’의 존재는 제주도와 중앙 권력이 피지배-지배 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피지배-지배의 권력 구도에 파탄이 생긴다. ‘양이목사’가 권력의 대리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배반하고 진상마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馬場에 모아놓은 백마 백 필에 대한 ‘탐심’이 생긴

13) 조동일은 ‘양이목사’가 ‘본토에서 부임한 목사이면서 제주도 토착 세력의 대표자이기도 한 이중성이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조동일, 앞의 책, 93면). ‘이중성’은 ‘양이목사’가 동시에 서로 다른 집단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데, 본고는 ‘양이목사’가 어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면 그 집단은 신화적 서사를 전후로 하여 변화했다고 보는 입장임을 명확히 해 둔다.

‘양이목사’는 마부들 대신 자신이 직접 진상가겠노라는 핑계를 대고 말들을 육지로 가지고 나가 팔아치우고, 그 돈으로 물품을 사서 제주에서 다시 판다. ‘양이목사’는 중앙 권력의 대리자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 이른바 ‘육지’와 ‘제주도’ 사이의 물자를 거래하는 일종의 거간꾼이 되는 것이다. ‘진상’을 매개로 ‘중앙 권력’과 그 권력의 지배 하에 있는 ‘지방’에 불과했던 육지와 제주도의 관계는, 이제 ‘진상’이 아닌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등한 관계가 됨으로써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벗어나게 된다. ‘양이목사’의 일탈 행위는 단순한 ‘횡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중앙 국가 권력에 종속된 제주도의 정치적 지위를 변화시킨다는 점에서 권력 관계 파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백마 백 필을 ‘진상’하지 않고 ‘거래’의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권력 관계를 파탄낸 ‘양이목사’를 징벌하기 위해 중앙 권력은 ‘금부도사’를 파견한다. 자신을 잡으러 온 ‘금부도사’ 앞에서 ‘양이목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 우리나라 상시관이 굶주리는 백성을 좋은 세상에 살리겠다고 다스리고, 백성은 임금을 모시어 한 마음 한 뜻, 한 집안 한 가족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백성에, (ㄱ)특히나 불쌍한 제주 백성에게 일 년에 한 번 백마 백 필씩 진상을 올리라 하니(밑줄 필자). 임금의 배인들 얼마나 큰 배이기에 일 년에 백마 백 필씩을 먹고 삼키는 배가 있겠느냐? 임금이 먹는 백마 백 필 진상 나도 한번 먹어보려 입을 벌려 먹었더니, 백마 백 필 다 삼키지도 못하고 제주의 불쌍하고 굶는 백성 생각하니, 산 짐승이 목에 걸려 목 아래로 내려가질 않더라. 하다하다 백마 백 필 육지 모든 백성에게 나눠주고 우리 제주서 귀중한 물품을 얻어 제주 백성을 도운 이 내 몸이다. 네가 내 목을 베자 한들 하느님인들 무심할 수 있겠느냐? 자, 부디 이 말을 용상에 앉은 임금에게 잘 여쭙어 올려라.

(ㄱ)에서 보이듯, ‘양이목사’는 ‘백성’과 ‘제주 백성’을 구분하고 있다. 백마 백 필의 진상이 ‘특히나 불쌍한 제주 백성’에게만 부과된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양이목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 백성에게만 부과되

는 백마 백 필 진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양이목사본>의 서두에 매년 올리는 백마 백 필 진상이 네 번째에 이르렀을 때 ‘양이목사’가 부임했다고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면 ‘백마 백 필 진상’이 의미하는 제주도와 육지의 피지배-지배 관계의 성립이 그다지 오래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가 고려 시대 이후에야 한반도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의 일부로 편입되었고 지정학적 위치와 軍馬 자원으로 인해 여말 선초 시기 고려와 원, 조선과 명이 제주도를 차지하려는 각축을 벌였음을 상기할 때,<sup>14)</sup> ‘백마 백 필 진상’은 제주도가 한반도 국가의 일부로 편입됨으로써 중앙 권력의 지배 하에 놓이게 된 역사적 정황의 신화적 표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백마 백 필 진상’이 ‘특히나 불쌍한 제주 백성’에게만 부과된다는 표현은, 제주도가 중앙 권력의 지배가 미치는 다른 ‘지방’과는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제기인 동시에 제주도의 특수한 정치적 위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양이목사’는 제주도에 대한 중앙 권력의 과도한 수탈을 고발함과 동시에 그러한 수탈의 원인이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중앙 권력과 제주도 사이의 권력 구도에 있음을 드러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 구도의 문제가, 지배 권력의 대리자였던 인물을 통해 폭로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양이목사’에 의한 권력 구도의 교란과 파탄은 결국 ‘금부도사’가 ‘양이목사’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다. ‘금부도사’의 승리는, ‘양이목사’의 행위로 대표되는 권력 구도의 파탄이 용인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하게 된다. 권력 구도의 교란을 초래한 ‘양이목사’는 ‘금부도사’에 의해 목이 잘리는 운명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하지만 ‘상시관’에게 바쳐진 ‘양이목사’의 ‘머리’는 그간의 사정을 호소하고, 결국 제주는 백마 백 필 진상을 면할 수 있게 된다. ‘양이목사’는 권력 구도에 파탄을 일으켜 죽음에 이르렀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제주 백성’들에게 부과된 부당한 의무를 해결해 준 인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던 것이

14) 이에 대해서는 줄고, 앞의 글(2008), 3.1.1. 참조.

다.

요컨대 <양이목사본>은 제주도와 중앙 권력 사이의 역사적 특수성을 드러내는 한편, 그러한 권력 관계가 '진상 감면'이라는 형태로 변화했을지언정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양이목사본>에는 제주도와 중앙 권력 사이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제주도 내부의 권력 관계 역시 드러난다. 무엇보다 사공의 성씨가 고씨라는 점이 예사롭지 않다. 자신을 잡으러 온 '금부도사'를 피해 달아난 '양이목사'는 배를 몰았던 고씨 사공이 '양이목사'의 정체를 드러내는 바람에 도주에 실패하고 만다. 또, 고씨 사공은 비록 '떨리는 양손'으로였기는 하나 '금부도사'의 명으로 '양이목사'를 직접 돛대에 매단다.

금부도사가, “어디로 가는 배요?” 고사공이 양이목사보다 먼저 대답하되, “제주 양이목사가 유람가는 배요.”(밑줄 필자) 그 말 끝에 양이목사가 ‘아차, 일이 틀렸구나.’ 얼굴에는 방울땀이 내립데다. 그 말 들은 금부도사, 양이목사 오른 뱃장으로 튀어 오르면서 “어느 게 양이목사냐?” 양이목사 언뜻 일어서며 “내가 양이목사다.” 금부도사도 비창금을 내어들고 자객놈은 조각칼 휘둘러 (...) 양 무릎 꿇리어 이 말 들던 금부도사 팔짝 튀어 양이목사 상투를 잡고 감태줄같이 형클어진 머리 뱃땃줄에 꿰꿰이 매어, 고사공보고, “뱃땃줄을 당기라.” 고사공은 떨리는 양손으로 뱃땃줄을 잡아, 양이목사 어느 새 돛대에 매달린 몸이 되고, (밑줄 필자) 금부도사에게 말을 하되 “비창금으로 어서 내 목을 베어라.” 금부도사도 비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하비창금을 한 번 휘두르니, 양이목사 한 몸이 두 개 뉘데다.(...)

<양이목사본> 전체에서 고씨 사공은 줄곧 그 의도야 어찌되었든 행위만으로 보면 ‘금부도사’의 조력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배를 탄 ‘양이목사’와 ‘고사공’이지만 ‘금부도사’에 대한 행동의 지향은 서로 정반대라고 할 수 있다. ‘양이목사’는 ‘안티(anti)’로서, ‘고사공’은 일종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양이목사’는 최후의 순간 자신이 죽게 된 사건의 전

말을 목격한 사공에게 ‘토지관 탐라 양씨’에게 자신을 모셔달라는 말을 전하라고 한다. ‘고사공’의 집안이 아니라 양씨 집안에 모셔달라고 한 것은 <양이목사본>에서 ‘고사공’과 ‘토지관 탐라 양씨’가 구분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즉, ‘고사공’으로 대표되는 ‘고씨’와 ‘양이목사’가 일월조상으로 수호해 줄 ‘양씨’ 집안이 변별되고 있는 것 아닐까?

‘고씨’와 ‘양씨’는 <삼성신화> 혹은 <을나신화> 등으로 명명되는 이야기가 조선 초에 문자화될 때 이본에 따라 그 長次가 달라지곤 하던 ‘고을나’와 ‘양을나’의 집단이다.<sup>15)</sup> <을나신화>에서 제주도 내부의 권력 집단을 대표하던 ‘고씨’와 ‘양씨’가 <양이목사본>에도 등장한다는 것은, <양이목사본>에서의 ‘양이목사’와 ‘고사공’ 역시 이러한 내부 권력 관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고려나 조선, 원(元) 등 외부의 국가 권력이 제주도에 지배 권력을 행사할 때 제주도 토착 세력의 협조는 필수적인 것이었다. 특히 조선초에는 제주도의 고씨 일문이 외부 국가 권력과 밀착된 토착 세력으로 부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제주 내부의 주도권을 놓고 고씨 일문과 경쟁했던 토착 세력인 양씨 일문이 상대적으로 권력에서 소외되었다.<sup>16)</sup> ‘금부도사’로 대표되는 중앙 권력과 ‘고사공’으로 대표되는 제주도 토착 세력의 암묵적 공모, 또 이로 인한 ‘양이목사’의 죽음은 이러한 역사적 정황과 상당 부분 겹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양이목사본>은 제주와 외부 국가 권력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 하는 역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고씨’ 집안이 수행한 역할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하겠다.

15) 조선 초 <삼성신화> 혹은 <을나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줄고, 「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학회, 2007 참조.

16) 외부 국가 권력의 지배와 제주도 토착 세력의 관계에 대해서는 줄고, 앞의 글(2008), 43-45면 참조.

### 3. <양이목사본>의 담론적 의미

#### 3.1. 신앙 담론과 역사 담론

<양이목사본>은 탐라 양씨 명월과 집안에서 전해지는 ‘일월조상’의 유래담이다. 제주 밖 한반도에서 건너온 ‘목사’가 어떤 연유로 한 집안의 ‘일월조상’으로 자리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이야기인 것이다. 따라서 <양이목사본>은 기본적으로 신앙 차원에서 발화되고 향유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있다.

탐라 양씨 집안에서 ‘양이목사’를 ‘일월조상’으로 모시게 된 것은 ‘양이목사’가 탐라 양씨 집안에게 자신을 제향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본풀이에 나타난 표면적 이유이다. 하지만 ‘양이목사’가 ‘일월조상’으로 섬겨지는 근본적 이유는 <양이목사본> 서사에서 구현되는 ‘양이목사’의 특이성에 있다. ‘양이목사’가 행한 업적이나 능력에 근거하여 그러한 업적과 능력을 지닌 ‘양이목사’라면 신앙민들을 보호해 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양이목사’에 대한 제향의 근거에 자리하고 있는바, <양이목사본>에서 무엇이 ‘양이목사’의 업적과 능력으로 제시되고 있는지 살피는 일은 <양이목사본> 신화의 신성성의 근거를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양이목사본>에 나타난 ‘양이목사’의 업적은 무엇인가? <양이목사본>에서 갈등의 발단이 되는 것은 ‘양이목사’가 매년 진상하기로 되어 있는 ‘백마 백필’에 대한 횡령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백마 백필을 욕지 모든 백성한테 나눠주고 우리 제주에서 귀중한 물품을 얻어 제주 백성을 도운’ 행위라는 것이 ‘양이목사’ 자신의 진술에 의해 밝혀진다. 이 말을 들은 ‘금부도사’가 ‘은하비창금’으로 ‘양이목사’의 목을 베면서도 ‘비같이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횡령’이라는 사건에 가리워진 진실이 ‘애홀’에 있었음을 ‘금부도사’도 감지하고 있었음을 표현한 것일 터이다.

‘양이목사’의 진실은 ‘금부도사’의 상위 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상시관’에게도 통한다. ‘금부도사’는 ‘양이목사’의 목을 ‘상시관’에게 바치는데, ‘양이

목사'는 다시 '모든 사실'을 '상시관'에게 고하고, 그 결과 '제주 어려운 마장 백마 백 필 진상을 도면'하게 되기에 이른다. <양이목사본>은 그것이 '양이 목사 한 몸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요컨대 '양이목사'의 업적은 '백마 백 필'을 진상해야 하는 과도한 납세의 의무를 도면하게 해 준 것이고, 그 업적은 '양이목사'의 목숨과 맞바꾸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양이목사'가 한 집안의 '일월조상'으로 모셔지는 까닭은 그가 '백마 백 필 진상'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백마 백 필 진상'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한반도에서 유래한 인물로부터 포착하여, 그 인물의 힘을 공동체를 수호하는 신격으로 전환하여 받아들인 것이다.<sup>17)</sup>

주목할 만한 점은 <양이목사본>에서 제시되는 문제적 상황이 한반도 국가 권력이 제주를 지배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양이목사본>은 그러한 권력 구도 하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해 준 인물을 신성시하는 언술로서도 기능하게 된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양이목사본>이 단순한 신앙 담론이 아니라 특정 시기의 역사에 대한 본풀이 전승 집단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는 역사 담론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음을 포착할 수 있다. <양이목사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상호 관계가 제주 역사에 나타나는 권력 관계와 중첩된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양이목사본>이 전승 집단의 역사 담론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더욱 분명해진다.

### 3.2. 탐라 양씨 집단의 역사 해석

<양이목사본>은 그 서두에서 제주섬 밖에서 유래한 국가 권력이 제주를

17) 줄고, 위의 글, 84면. 섬 바깥의 외부에서 비롯된 '힘'을 섬 내부의 '신'으로 전유하는 방식은 제주도 기층 신화의 향유 국면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줄고, 같은 글의 4장 참조.

지배하는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제주와 중앙 권력이 피지배-지배 관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목사’의 부임으로 분명하게 나타나며, 그러한 지배가 ‘백마 백 필 진상’이라는 골치아픈 과제를 낳았다는 사실이 그려진다.

본풀이에서 서술되는 ‘양이목사’와 관련된 사건을 살펴보면, 이러한 ‘지배’에 대해 전승 집단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감지된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양이목사본>을 외부 권력의 지배를 부정하는 담론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지적했지만 ‘양이목사’의 ‘횡령’은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파탄이라는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 것이다. ‘양이목사’의 횡령이 발각되는 순간 ‘금부도사’가 파견되는 것은 지배 구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양이목사’는 ‘금부도사’에 의해 목이 잘리는 운명을 맞아야 한다. 중앙 권력에 의한 지배라는 권력 구도가 <양이목사본>에서도 수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지배에서 파생되는 문제까지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양이목사본>에는 그러한 권력 구도의 문제적 면모가 지적된다. ‘제주 어려운 마장 백마 백 필 진상’은 중앙 권력에 의한 지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양이목사’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한 인물로 그려진다. 권력 구도의 파탄은 용인되지 못한 반면, 외부 권력에 의한 과도한 수탈이라는 문제는 ‘양이목사’의 희생에 의해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양이목사본>은 외부 권력의 지배라는 역사의 한 국면을 서술하는 한편, 그러한 지배에서 기인한 문제가 ‘양이목사’에 의해 해결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전승 집단은 외부 권력의 지배라는 정치적 질서는 인정하되, 그것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처우는 다름아닌 자신들의 ‘일월조상’인 ‘양이목사’의 힘을 빌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이목사본>의 전승 집단이 ‘탐라 양씨’라는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양이목사’와 함께 등장하는 ‘고사공’ 및 그와 관련되는 사건은 제주 내부의 권력 관계 변화에 대한 ‘탐라 양씨’ 일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양이목사’에 의해 시도된 지배 구도의 파탄은 ‘고사공’이 ‘금부도사’에게



‘양이목사’의 존재를 알려준 것을 계기로 ‘양이목사’가 정치됨으로써 이전의 지배 상태로 회복된다. 요컨대 ‘고사공’에 의해 외부 권력에 의한 지배가 지속될 수 있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고사공’은 ‘양이목사’를 돛대에 매달아 ‘금부도사’가 ‘양이목사’를 처형할 수 있도록 한다. <양이목사본>은 ‘고사공’의 행위가 ‘금부도사’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음을 서술하는 한편 결국 그로 인해 ‘양이목사’가 비극적 죽음을 맞게 되었음을 동시에 서술한다. ‘고사공’에 대한 이해와 부정적 평가가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탐라 양씨 집안이 외부 권력의 개입 과정에서 촉발된 고씨 가문과의 권력 게임에서 결과적으로 패배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고려할 때, <양이목사본>은 ‘고사공’의 ‘금부도사’에 대한 조력 행위를 서술함으로써 현재 권력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책임의 일부를 ‘고사공’으로 대표되는 고씨 가문에 묻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그러한 권력 구도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한 인물을 자신들의 가문의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권력 구도 안에서는 잃어버린 집안의 영향력을 ‘조상신’의 층위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결국 <양이목사본>은 한반도 국가 권력의 지배와 탐라 양씨 집안의 정치적 영향력 상실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탐라 양씨의 시각에서 재진술하면서, 역사의 변화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인물을 자기 집단의 일월조상으로 자리매김하는 언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양이목사본>은 탐라 양씨 집안의 시각에서 서술된 제주 역사이자, 탐라 양씨 집안은 현재의 권력 구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한 인물이 일월조상으로서 수호해주는 특별한 가문임을 강조하는 담론인 것이다.

### 3.3. 비-동일화 담론의 저항성

본고의 논의에 따르면 <양이목사본>은 한반도 지배 권력에 대한 제주도의 집단적 저항 의지를 드러내거나 고양하는 담론이 아니다. <양이목사본>에서는 ‘현재’의 지배-피지배 관계가 수용되어 있으며, 그것에서 비롯하는

문제 역시 ‘일월조상’인 ‘양이목사’에 의해 해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권력 구도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해결이 모색된다는 점에서, <양이목사본>은 권력 지배를 부정하고 전복하려는 대립적 저항 담론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본고는 <양이목사본>이 ‘본풀이’라는 신앙 담론 차원에만 그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반도 국가 권력의 지배 아래에서 제주도 내부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해 간 탐라 양씨 집안이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고 그를 통해 현재의 위치를 재설정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역사 담론적 면모도 드러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양이목사본>을 제주 호족인 탐라 양씨의 신앙 및 역사 담론으로 볼 때 참고해야 할 것은 제주의 또다른 대표적 호족 세력인 탐라 고씨 집안의 경우이다. 조선 초 고씨 집안은 <영주지>나 <서세문> 등 집안 시조 신화의 문자화를 통해 변화된 권력 구도 내에서 가문의 지위를 재확인하고자 하였다.<sup>18)</sup> 특히 조선 초 중앙 관료로도 진출했던 고득중(高得宗)이 쓴 <서세문>은 중앙 권력에의 적극적 부용으로 일정한 정치 권력을 유지했던 고씨 일문이 중앙 권력의 직접 지배가 강화되면서 그 영향력을 상실해 가는 역사적 상황 위에서 기록된 것이다. <서세문>은 ‘탐라 건국’이라는 태초의 신화적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 ‘탐라 왕족’이라는 가문의 지위를 재확인하고자 한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언술이다.

<서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신화의 내용은 조선 시대 관찬 문헌<sup>19)</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서세문>에서 강조되는 ‘탐라국 왕족으로서의 고씨 일문’의 면모는 거세되고, 고씨 시조에 대한 이야기 정도로 그 위치가 격하된다.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한쪽에서는 신성한 건국 시조 신화로 그려지는 데 반해, 다른 쪽에서는 그 신성성이 약화되거나 제거되고 있는 것이다.<sup>20)</sup>

18) 이에 대해서는 줄고, 「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 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7 참조.

19) 대표적인 것은 조선 초 편찬된 『고려사』 「지리지」의 것으로, 이것이 이후의 관찬 문헌이나 고려 문인들의 글에 거듭 활용되었다.

유사한 내용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게 의미화되는 양상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왕조 차원의 담론에 반박하는 방식으로 <서세문>과 같은 고씨 일문의 신화가 문자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정치 권력을 상실한 고씨 일문은 새롭게 등장한 권력 체제가 제시하는 신화적 '의미'를 수용하지 못하고 그에 반하는 의미를 드러내는 담론을 형성해 간 것이다.

하지만 고씨 일문의 그러한 담론은 '족보'의 '서문(序文)'이라는 언술 형식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족보'라는 문헌의 특성상, <서세문>에 표현된 신화가 어떤 담론적 의미를 지향하든 그것은 특정 성씨의 시조에 대한 이야기로 고정되고 말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씨 일문의 <서세문>과 같은 글은, 지배적 담론을 거부하면서도 결국은 지배 담론의 틀 속에 갇히게 되는 역설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른바 '역-동일화'라는, '동일화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sup>21)</sup>

또한 이러한 담론은 현실적 삶의 차원에서는 아무런 실재적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도 그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현재의 권력 구도를 도외시킨 채 '태고'의 신화적 시공에서 확인되는 집안의 정체성이나 지위는, 집안 내부에서의 위안의 담론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으로 전환되기는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본풀이 형태로 전승되는 <양이목사본>은 어떠한가? 특정 집안의 의례에서만 전승되기는 하지만, <양이목사본>은 고씨 일문의 문헌 기록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무엇보다 <양이목사본>에는 현재의 권력 관계가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양이목사본>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권력 구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제시한다. 외부 권력에 의한 지배라는 권력 구도가 신화 전편에

20) 「지리지」 계열의 기록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건국 신화로 읽힐 수 있는 요소가 거의 제거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신화를 통해 확인되는 특정 집단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앞의 글(2007), 276-279면 참조.

21) 미셸 페쇠는 '주체'가 지배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자신을 구성하는 방식을 '동일화', '역-동일화', '비-동일화'의 세 가지 양상으로 구분하였다. 본문에서의 '역-동일화'는 이러한 페쇠의 용어에 기댄 것이다. 참고, 앞의 글(2008), 78면의 각주 216) 참조.

결쳐 일관되지만 그러한 권력 구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목사’라는 외부적 존재를 ‘일월조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해결되는 것인바, 이는 현실의 권력 구도를 수용하되 ‘외부 권력의 지배’라는 의미를 지니는 ‘목사’를 고단한 현실적 삶의 극복을 도와주는 가문의 일월조상, 즉 ‘양이목사’로 그 의미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지배적 담론 체계에서 고정된 ‘목사’의 ‘의미’를 교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up>22)</sup>

폐쇄의 용어에 다시 기대면, 이는 지배적 담론을 인정하되, 그 담론 체계에서 이용되는 언어의 개념을 새로운 것으로 ‘전유’함으로써 지배 담론이 형성하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는 ‘비-동일화’<sup>23)</sup> 방식의 언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배 권력이 인지하지 못하는 ‘조상본풀이’라는 담론 형식을 통해 구성되는 ‘비-동일화’의 담론은 지배 권력의 담론이 구성하는 ‘의미’를 무력화시킨다는 점에서 또다른 의미의 ‘저항 담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양이목사본>의 ‘저항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sup>24)</sup> 전승 집단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수용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집단 내부의 시스템-이를테면 ‘일월조상’에 대한 신앙 체계-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지배 권력이 조장하는 시스템과 지배 이데올로기로 포획되지 않는 ‘탈주’를 뜻할 것이기 때문이다.

## 4. 마무리

<양이목사본>에서의 ‘양이목사’의 행위는 ‘금부도사’가 상징하는 중앙 권력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해석을 주요 근거로 하여 <양이목사본>은 흔히 중앙 권력에 대한 제주민의 집단적 저항 의식을 드러내

22) 위의 글, 177-178면.

23) 위의 글, 78면의 각주 216) 참조.

24) 위의 글, 85면.

는 담론으로 자리매김되곤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토대로 <양이목사본>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담론적 의미를 구명함으로써, 기존의 해석을 좀더 세밀하게 다듬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양이목사본>을 탐라 양씨 집안의 담론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그러한 담론의 현실적 의의와 ‘저항’의 새로운 의미를 구명해 낼 수 있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서는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만이 존재하는가? 피지배 집단 내부의 ‘저항’은 지배 권력에의 반대와 전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가? 지배 권력에 대한 대응은 피지배 집단 내부의 이질적인 여러 집단마다 다를 수 있지 않은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의 모색이, <양이목사본>을 탐라 양씨 집안의 현실적 담론으로서 규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의 신화를 중앙 권력에 복속된 제주의 역사와 관련지어 이해할 때, 자칫하면 지배와 피지배, 억압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에 갇히기 쉽다. 역사적 맥락과 관련되는 신화적 언술들에 내포되어 있는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러한 도식으로 일반화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제주도의 신화는 ‘제주도 신화’로 묶어버리기에는 그 내부에 너무나 다양한 층위와 성격의 신화가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양이목사본>이 탐라 양씨 집안이라는 호족 집단의 신앙 담론이자 역사 담론으로 파악되었듯, ‘조상본풀이’라는 갈래로 일반화되는 신화들 역시 각 유형의 신화적 의미와 기능이 같지만은 않을 것이다. 개별 텍스트를 그 전승 맥락을 고려하여 고찰하고, 그러한 이해를 토대로 갈래를 나누고 그 갈래의 일반적 성격을 구명해 내는 일이 앞으로 남겨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정진희(1999), 「제주도 당본풀이의 유형과 변천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정진희(2007), 「조선초 제주 <삼성신화>의 문자화 양상과 그 의미」, 『고전 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 정진희(2008), 「제주도와 미야코지마 신화의 비교 연구-외부 권력의 간섭과 신화의 재편 양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동일(1997),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 지성사.
- 조동일(1997), 『인문학문의 사명』, 서울대출판부.
- 조현설(2008), 「'외부'의 부당한 억압이 만들어 낸 비극적 남성 영웅」,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고전 캐릭터가 펼쳐 보이는 사랑과 인생』 (서대석 엮음), 휴머니스트.
- 최원오(2001), 「동아시아 무속영웅서사시의 변천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원오(2001), 『동아시아비교서사시학』, 월인.
- 현용준(2007), 『제주도 무속자료사전』(개정판), 각.

# The Meaning of "*Yang-yi Moksabon*" Myth on Jeju Island

Jung, Jin-Hee\*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myth about *Yang-yi Moksabon*.

This myth is the sacred song about 'ilwol-chosang', that is, a mythological ancestor and guardian deity of Yang Clan in Jeju. So, we can say that this myth is a religious discourse cause by orally narrated at domestic ritual, the myth becomes a proof of divine providence of 'ilwol-chosang'.

But the myth of *Yang-yi moksabon* is a historical discourse, too. The narrative shows that how the Yang clan see the 'past' when they lost their political power for governing of the Kingdom from the Korean Peninsula.

Most of all, this myth is a discourse jumping over—not against or countering—the ruling ideology. I call it 'dis-identification' quoting of Michel Pêcheux's. I think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meaning of the myth as a peripheral discourse.

**Keyword :** Jeju, myth, *Yang-yi Moksabon*, discourse, dis-identification

---

\* Seoul National University

논문투고일 2009. 05. 24

심사완료일 2009. 07. 04

게재확정일 2009. 08. 18